東大新聞

發行人 李 瑄 根
編輯人 鄭 允 燾
主幹 宋 赫
編輯部長 李 相 泰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8131~9
本社直通@8577

每週火曜日發行

優等장학생 名單 발표

6日 奬學證書 수여식 「敎授室」

1백36名, 前年比 18명 增加

○……75學年度 제2학기 우등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지난 1일 학생처에서 確定, 發表되었다. 이번장학……○
○……학생은 1학년 26명(首席=김말연 법학), 2학년 34명(수석=김보영·工經), 3학년37명(수……○
○……석=송문선·工經), 4학년 39명(수석=김연수·農生) 인보 總1백36名이다.

이번學期의 優等奬學生은 작년 2학기보다 18명이나 늘어나 학생들의 높은 勉學熱을 나타냈다.

특히 우등장학생 가운데는 入學때 金筱次席(經商大수석)을 차지한바 있는 김윤숙(무역1) 양이 1학년 전체에서 역시 次席을 차지하여 注目을 끌었다.

또 農林대학 1학년에서는 작년 3월 중퇴된 造景學科의 吳海一군만이 학수석을 차지했고 라과에서는 수석이 나오지않아 저조한 성적을 드러냈다.

우등장학금은 所定의 학점을 取得하고 평균85점이상인者로 각학과의 수석에 한하여 수업료 전액이 지급된다.

특히 6일상오11시에 교수회에서 있게되는 장학증 수여식에는 금년부터 總長이 직접수여하기로했다. 따라서 우등장학생 해당자는 참석하기바라며 8일 9상의간 등록해야한다.

◇佛敎大學
▲불교과=윤두호(1)·서정윤(2)·손필숙(3)·김보생(4) ▲철학과=윤현진(1)·김석재(4)·진영유(4) ▲문예창작과=정승석(1)·조경심(2)·이육상(3)·정경분(4) ▲미술과=문변순(1)·장경희(3)·이욱(4) ▲승가학과=서진호(1)·전학환(2)·최창술(3)·강법석(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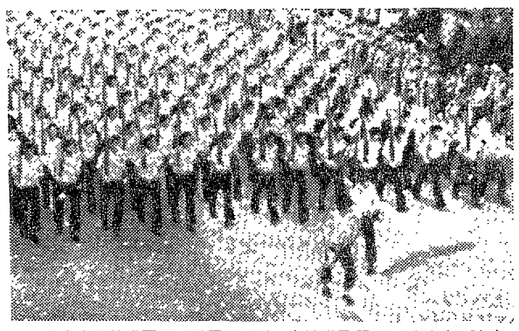
◇文理科大學
▲국문과=김용익(1)·이명숙(2)·오택원(3)·정우영(4) ▲영문과=김혜경(1)·전영란(3)·장송용(4) ▲사학과=심정순(2)·박정순(2)·김숙수(4) ▲영어과=박진진(1)·송성희(2)·이우정(3)·문미옥(4) ▲행정학과=손유동(1)·고경(2)·이종현(3)·고흥규(4) ▲경영학과=서영춘(1)·정부용(3)·김경근(4)

◇경찰대학
▲경찰과=진형석(1), 장보순(2), 무역과=김용숙(1), 정선영(2), 김진태(3), 차주황(4), 이대영(2), 배길상(3), 이상윤(4), 전산과=신숭윤(2), 이계영(3), 김호원(4).

◇농업대학
▲농학과=고규필(3)·박영식(4) ▲임학과=민은식(2) 김표완(3) 김두식(4) ▲농경과=박선환(2) 정신송(3) 조위건(4) ▲농생과=박광호(2) 안형학(3) 김연수(4) ▲조경과=이해일(1)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양상익(1), 조남영(2), 홍을규(3) ▲토목공학과=유태호(3), 구진육(4) ▲전기공학과=신교식(1), 허남언(2), 박태홍(3), 김형남(4) 전육진(3), 유광희(4) ▲건축과=임현규(2), 노인철(3), 공수용(4), 조화광과=강윤석(2), 조철근(3), 안태현(4), 허경수(3) ▲산업자원과=고덕희(2) ▲식공과=함완식(1), 한진현(2), 이문석(3), 김재윤(4) ▲광경과=김송윤선(3), 김보영(2), 김등민(4)

◇사범대학
▲국교과=이진순(1), 김등순(2), 박정옥(3), 남동현(4), ▲사회교육과=박영민(1), 전영철(2), 이길만(3), 유혜숙(4) ▲수학교육과=우종대(1), 최유진(2), 김보영(3), 정경희(4) ▲과학교육과=이경숙(1), 정유정(2), 김태근(3), 정종필(4) ▲체육교육과=박해연(1), 김경희(2), 유길기(3), 백용만(4) ▲가정교육과=김경희(1), 홍무식(2), 전석우(3), 이숙임(4), 이상기 1백36명.



◇中央學徒護國團 發團式에서 本校護國團이 행진하고있다.

中央學徒護國團 발단

本校生 2백20여명 參加

지난2일 中央學徒護國團 發團式이 여의도 5·16광장에서 있었다.

발단식에는 본교생 2백20여명을비롯, 전국 각학교 호국단원을 대표한 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金鍾泌국무총리는 訓示에서 「民族의 위기에서 분연히 일어선 우리학도호국단원들은 배우면서 싸우는 호국학도로서의 일무를 다하여 民族의 正統性守護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農林대표들은 ▲배움과 수련에 전념하여 내일의 실력있는 지도자가되고 ▲민족의 역군이 되며 ▲중앙중심을 이룩하고 자주와 번영을 이룩하여 심는 나는 교장관의 사열이있었다.

이어 김홍리의 유기훈문 3개항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김홍리의 유기훈문 3개항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하였다.

耕耘機 2臺 기증

政府서 農業振興策 일환

朴正熙대통령의 특별지시와 정부의 농업진흥책의일환으로 본교 농업진흥책의일환으로 본교 농업대학에경운기 2대가 기증되었다.

지난 8월11일 기증받은 2대의 경운기는 각각 8월22일까지 農大실험농장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운기는 大東기계공업사에서 제작한것으로 발동력으로 에 이어 참가자생들은 마포→시청→동양정을 돌아 비원앞에서 해산하기까지 보무도 당당히 정연하여 호국학도의 기백을 과시했다.

追加登錄 2~4日限

學資金 융자申請 늘어

지난 등기간의 등록율은 약60%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이 기간에 學資金융자신청을 한 學生은 6백47명으로 나타났는데 追加登錄期間에도 학자금 융자는 계속받는다.

本校 야구팀은 東亞日報社 주최 대학야구추계연맹전에 출전, 초반의 호조에도 불구, 2승·무·2패의전적을 기록하여 결승리그진출의 꿈을 이루지못했다.

30일 東亞大와의 對戰에서도 2대1로 승리, 2승1무1패로 결승리그진출전적을 거두었다.

本校野球部 決勝진출탈락

延大에 9對1敗

10個 洞窟 測量마쳐

洞窟탐험부 旌善地方서 同志社大와 공동

KBS探險實況촬영

洞窟探險연구회(會長·하성환·농학3)는 夏季放學을 이용하여 8월11일~22일까지 강원도 旌善郡에 있는 洞窟의 현지답사와 측량을 끝마쳤다.

이번 探險에는 KBS-TV와日本 同志社大學 洞窟探險部와 함께 학술적 조사와 측량, 채집등 미지에 쌓여 있던 정선지방 동굴의 비밀을 파헤쳤다.

洞窟探險연구회(會長·하성환·농학3)는 夏季放學을 이용하여 8월11일~22일까지 강원도 旌善郡에 있는 洞窟의 현지답사와 측량을 끝마쳤다.

이번 探險에는 KBS-TV와日本 同志社大學 洞窟探險部와 함께 학술적 조사와 측량, 채집등 미지에 쌓여 있던 정선지방 동굴의 비밀을 파헤쳤다.

또한 Joyce Cary와 같은 作家는 인간의 생각과 상상력을 가지고 독특한 한 문명체계를 세우고 그 人間的인 합축성에 대응할 수 있었던 소수의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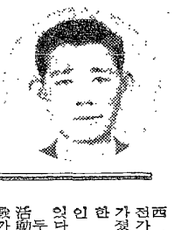
본난에서 필자는 구체적인 개개의作家를 논하기보다 전후 英小說의 추세를 대체로 英語의 그것과 비슷한 경로를 걷으면서 구라파 文學의 주류로부터 벗어난채 편협과 폐배주의에의경향을 보이면서 발전해오고 있다. 팔목할만한 그룹들의 주장과 성실성과를 참뜻이 전혀 결여된 것은 아니면서도 그러나 종처럼 동일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Henry James, Joseph Conrad, E. M. Foster, D. H. Lawrence, 그리고 Virginia Woolf 등 大家들이 활약하던 20세기초의 英小說의 규모와 다양성을 회고할 때 戰後英國現代小說에의 지않은 쇠퇴의 기미를 잡지하게된다. Gilbert Phelps 같은 사람이 「戰後 英小說」 가운데서 단 한 권이라도 그 보물의 깊이며 창조적인 상상력에 있어서 Pasternak의 Dr. Zhivago 와 비교할 수 있는 作品이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게 했던 것도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많은 부정적인 징후에도불구하고, 그렇다고해서 英小說이 아주죽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戰後英國小說의 추세

偏狹과 敗北主義에의 傾向

學界의 焦点
金福善
〈綜藝藝部敎授〉



第二次大戰 이후의 英國小說의 추세는 대체로 英語의 그것과 비슷한 경로를 걷으면서 구라파 文學의 주류로부터 벗어난채 편협과 폐배주의에의경향을 보이면서 발전해오고 있다. 팔목할만한 그룹들의 주장과 성실성과를 참뜻이 전혀 결여된 것은 아니면서도 그러나 종처럼 동일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Henry James, Joseph Conrad, E. M. Foster, D. H. Lawrence, 그리고 Virginia Woolf 등 大家들이 활약하던 20세기초의 英小說의 규모와 다양성을 회고할 때 戰後英國現代小說에의 지않은 쇠퇴의 기미를 잡지하게된다. Gilbert Phelps 같은 사람이 「戰後 英小說」 가운데서 단 한 권이라도 그 보물의 깊이며 창조적인 상상력에 있어서 Pasternak의 Dr. Zhivago 와 비교할 수 있는 作品이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게 했던 것도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많은 부정적인 징후에도불구하고, 그렇다고해서 英小說이 아주죽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본난에서 필자는 구체적인 개개의作家를 논하기보다 전후 英小說의 추세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개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자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그룹으로분류해보는 것이 편리할듯 한다.

첫째는 30年代의 生存者들로서 루시 Jane Austen과 그 主潮의 展開라고 할 수 있었던 作家들로서 그 가운데는 Charles Morgan, Rex Warner, Aldous Huxley, George Orwell, Evelyn Waugh, Samuel Beeket 그리고 Graham Green등이 비롯된다. 이들은 確立된 각자의 文學스타일을 심화내지는 확장하면서 자기 世界를 추구해갔었다. 이들은 30년대 生存作家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하나의 특징인 대전후 東西 양진영의 이념적인 양극화현상의영향을 나타냈다.

특히 우등장학생 가운데는 入學때 金筱次席(經商大수석)을 차지한바 있는 김윤숙(무역1) 양이 1학

女流作家는 19세기초의 선배작가인 Jane Austen과 그 主潮의 展開라고 할 수 있었던 作品素材에 대한 선배들위의 限定性 등에서 크게 유사한 경향을 띠고있기 때문에 Austen과의 比較연구의 좋은 素材를 제공해주고 있는 중견작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Joyce Cary와 같은 作家는 깊은 통찰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독특한 한 현대사의 풍경과 그 人間的인 합축성에 대응할 수 있었던 소수의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는 30年代의 生存者들로서 루시 Jane Austen과 그 主潮의 展開라고 할 수 있었던 作品素材에 대한 선배들위의 限定性 등에서 크게 유사한 경향을 띠고있기 때문에 Austen과의 比較연구의 좋은 素材를 제공해주고 있는 중견작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Joyce Cary와 같은 作家는 깊은 통찰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독특한 한 현대사의 풍경과 그 人間的인 합축성에 대응할 수 있었던 소수의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두번째는 30年代에 이미 作品活動에 종사하기 시작했지만 대전終戰까지 미처 성숙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던 젊은 作家들이 이를 가운데는 Ivy Compton Burnet, L. P. Hartley, Anthony Powell, C. P. Snow, Joyce Cary 등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 Burnet 같은 作家는 30年代에 이미 作品活動에 종사하기 시작했지만 대전終戰까지 미처 성숙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던 젊은 作家들이 이를 가운데는 Ivy Compton Burnet, L. P. Hartley, Anthony Powell, C. P. Snow, Joyce Cary 등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 Burnet 같은

校內 美化作業 實施

造景科 剪枝, 香나무 植樹

農林大學 造景綠化科는 캠퍼스내 植樹된 觀賞樹의 剪枝 및 校內 美化作業을 실시한다.

2월부터 오는 6일까지 5일간 孫昌求교수등 造景科교수의 지도로 실시하는 剪定作業은 本館, 石造館, 佛像주위의 香나무·위주로 하며 記念植樹로 香나무2株도 代植하였다.

夏季 水中探險 마쳐

紅島國校와 자매결연

75년도 제17회 工大 水工學會 土木工學 水中探險部(部長=金松涤·수교3)는 夏季放學을 이용하여 紅島와 濟州道 牛島 대원들은紅島밤섬에서 해초의 학술적 조사와 홍보와 바다의 정화한 수실력정을 하여 水路局에서 65年 측정했던것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대원들은 紅島국민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1차적으로 學習用品을 보내 예정이다.

今週一言
蓋屋不密,
天雨則漏.
意不惟行,
淫泆爲寧.
지붕잇기를 성기게하면, 비가오면곧 새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해 가지지 않으면 탐욕은 곧 이것을 틈는다.
<法句經>

수리 보리

늘란 토끼

○ 鄭 臨 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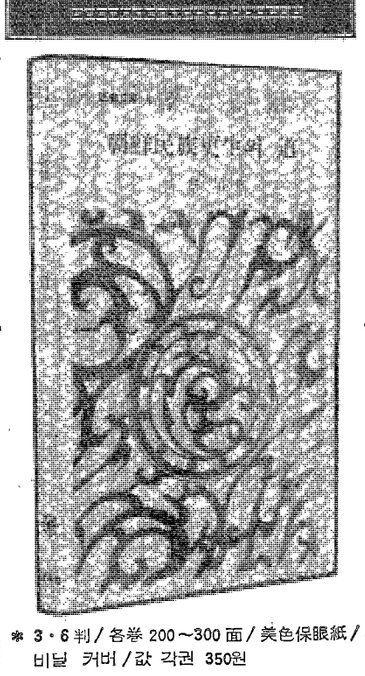
원시경전을 읽을때 마고 전성으로 행동하기도 다느끼는 일이다. 어찌 한다. 이러한 짓도 고쳤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수 없는 변통이다.

이토록 깊숙하게 표현하였는가에 대해서다. 부처님의 말씀은 한귀 한줄이 모두가 깊은 사려에서 샘솟은 지혜의 빛이다. 이 생명의 이상을 많이 복돋치면 어쩌나 하나하나 주워 모으면커녕 다란 보물이 흩지 하다. 그러나 사람은 게으르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견만이 제일 중하다고 어길분 남의 생각이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데 있었다. 이것이 큰 병이다. 그런가하면 참으로 그이치를 이해하거나 경험하지않고남의 말들을 쉽게 알아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람의 지식이다.

리면 어떻게 되나등 은 신하였다. 마지막에는 사갖구에 사로잡힌 토끼자도 달리기시작하였다. 이 이 도는것이 아니라 이때하를 가로막으면서 왜 룩하여 토끼잡이였다. 하늘 그럼데 뿡이 꺼지고하 늘이 무너지는 줭음이난 라고 하니 누구가 뿐느 것이냐. 토끼는 깜짝 놀 라서 달아나기 시작하였 리, 코끼리는 호함이, 호랑이도 달아나고 하자 사자는 코끼리를 경험하여야 한다. 우리들도 임생을 살면서늘 란토끼가 몇번이나 되고 있는지 원시경전의 숲속에서 지혜의 우물로 이 마음속을 축여야 할것이다.

正音文庫 100권 돌파!

國民讀書의 새 時代를 개척하는 전통의 正音文庫!



① 朝鮮民族更生의道 崔鉉培 著
② 永久平和를 위하여 I·칸트 著
③ 日帝下韓國學生獨立運動史 金成植 著
④ 아인시타인의 人生論 李八範 譯
⑤ 比較文學 M·F·가르 著
⑥ 죽은 자는 말이 없다 外 A·슈니츨러 著
⑦ 放浪의 情熱 錄騰 李範奭 著
⑧ 論語 李鍾殷 註
⑨ 李箱創作集 李箱 著
⑩ 印度史概說 朴錫一 著
⑪ 全琫準傳記 金義煥 著
⑫ 失手의 分析 S·프로이트 著
⑬ 朝鮮武士英雄傳 安自山 著
⑭ 韓國食料品史 朴容九 著
⑮ 詩學入門 C·D·루이스 著
⑯ 고호의 편지 洪淳曼 譯
⑰ 새로운藝術의誕生 미셸·라공 著
⑱ 老人과 바다 E·헤밍웨이 著
⑲ 善惡의 彼岸 F·W·니체 著
⑳ 抗日獨立運動史 李康勳 著
㉑ 韓龍雲一代記 任重彬 著
㉒ 創造的統一論 R·타골 著
㉓ 世界民話選 李一徹 譯編
㉔ 데미안 H·헤세 著
㉕ 現代韓國作家論 趙演鉉 著
㉖ 韓國名時調選 李秉極 註
㉗ 匡氏行狀記 外 李無影 著
㉘ 나사의 廻轉 H·제임스 著
㉙ 파스칼小品集 李恒 譯
㉚ 渡江錄 朴趾源 原著
㉛ 나뽈레옹傳 앙리·깔베 著
㉜ 韓國文學의社會史 林鍾國 著
㉝ 그날이오면 沈熏 著
㉞ 歷史의敎訓 A·J·토인비 著
㉟ 成年의 祕密 한스·카로사 著
㊱ 周時經傳 金世漢 著
㊲ 科學史話(化學篇) A·스타글리츠 著
㊳ 科學史話(物理篇) 朴萬奎 譯
㊴ 科學史話(生物·醫學篇) A·스타글리츠 著
㊵ 科學史話(農業·技術篇) 朴萬奎 譯
㊶ 萬歲前 外康, 想涉 著
㊷ 소크라테스의 辨明/잔치 플라톤 著
㊸ 性과文學 D·H·로렌스 著
㊹ 徐廷柱詩選 徐廷柱 著
㊺ 링컨傳 K·C·퍼이어 著
㊻ 漢字의運命 倉石武四郎 著
㊼ 잠못이루는밤을위하여 카알·뵐티 著
㊽ 志操論 趙芝薰 著
㊾ 숫타니파아타 法頂 譯
㊿ 한국의원시·고대미술 金基雄 著
(51) 솔제니친 短篇集 金鶴秀 譯
(52) 鬼의聲 李人植 原著
(53) 韓國民譚選 韓相壽 編
(54) 經濟哲學 J·로빈슨 著
(55) 젊은베르테르의슬픔 괴테 著
(56) 廬溪歌辭 朴仁老 原著
(57) 中國文化思想史 梁啓超 著
(58) 朴木月詩選 朴木月 著
(59) 우파니샤드 朴錫一 譯
(60) 落照 外 蔡萬植 著
(61) 제킬博士와하이드氏 R·L·스티븐슨 著
(62) 小說作法 鄭飛石 著
(63) 로댕語錄 崔起源 譯編
(64) 香頭歌·成造歌 金聖培 編
(65) 民族運動家아내의手記 李恩淑 著
(66) 中國民譚選 李周洪 譯編
(67) 日帝下韓國新文化運動史 趙容萬 著
(68) 사랑의交響樂 펠레그리니 著
(69) 카르멘 外 메리메 著
(70) 李陸史全集 李源祿 著
(71) 兒童文學論스미드 著
(72) 雜岳山 李人植 原著
(73) 韓國漁業史 朴九秉 著
(74) 白夜 外 도스또옙스끼 著
(75) 獨逸民譚選 金昌沼 譯編
(76) 尹奉吉一代記 尹南儀 著
(77) 於于野譚 李民樹 譯編
(78) 日帝下强制人力收奪史 金大商 著
(79) 安重根事件公判記 崔洪奎 校註
(80) 金妍實傳 外 金東仁 著
(81) 韓國近代女性史 朴容玉 著
(82) 哲學的人間學 막스셸러 著
(83) 日帝下韓國言論鬪爭史 鄭晉錫 著
(84) 事件百年史 趙欣坡 著
(85) 恐怖와戰慄 키에르케고르 著
(86) 人類의百萬年史 李廷基 著
(87) 追放된사람들 제임스 조이스 著
(88) 소나기 外 金裕貞 著
(89) 小說의構造 E·뮤어 著
(90) 李朝諧謔小說選 金起東 編
(91) 抗日義兵將列傳 金義煥 著
(92) 世界를변하게한便紙 李一徹 譯編
(93) 中國風流滑稽譚 李周洪 譯編
(94) 花粉 李孝石 著
(95) 韓國의禁忌語·吉兆語 金聖培 編
(96) 恒星의進化와人類의起源 R·찬스들우 著
(97) 뚤로베르隨想錄 鄭鳳和 譯
(98) 背德者 앙드레 지드 著
(99) 結婚의幸福 톨스토이 著
(100) 三·一運動史 尹炳奭 著

새로운 시대의 序章을 여는 한국 知性의 빛, 이것이 진정한 韓國人의 敎養의 표준이다!

正音文庫

* 3·6判/各卷 200~300面/美色保眼紙/비닐 커버/값 각권 350원

정음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22의 5 전화 ㉗9580 ㉗9581 ㉗9582 대체구좌 522458/사서함 서울 중앙 7

서울 ㉗9580·9581·9582·9583 영등포 ㊾6568 인천 ③5325 수원4235 안양2559 안성72 춘천2818 강릉2314 삼척88 원주2303 속초2301 목호547 영월367 청주2317 충주3261 대전②4168 천안2895 대천273 홍성2510 전주②4906 군산4294 이리5573 김제280 남원557 장수374 광주②4382 여수2111 순천3501 목포②5452 대구⑤2962 김천430 안동2044 포항2968 상주377 점촌2058 부산㉓0426·㊷7911 마산5421 충무2452 진주4093 울산3756 밀양401 하동64 제주4508

光復30年 學問界의 照明

○:解放後 한 세대를 보낸 光復30周年—本紙는 지난 30年間의 韓國學(哲學、國文學、史學)의 ○:흐름을 살피고 앞으로의 展望을 예측해 본다.

韓國哲學界의 向方

(1)

鄭璡 〈哲學·哲學科敎授〉

外國에 나가 최초로 哲學을 배웠은 이는 「西遊見聞」(1895)을 쓴 兪吉濬님이다. 그는 이 책의 「學業는 條目」에서 다음 학문과 더불어 철학을 들어, 『此學은 智慧를 愛好하여 理致를 追하기 爲함인 故로 그 根本의 深遠함과 眞用의 廣博함이 界域을 立하여 限定하기 不能하니 人의 言行과 倫紀며, 百千事爲의 動止를 論定한다.』라고 定義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철학의 定義지고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만하다. 李瀷鎔님은 1921년 스위스의 뉴리히大學에서 〈意識의 根本事實로서의 意志論〉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哲學博士가 되었고 1925년 帝大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나 그뒤 한동안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고, 1929년에는 金斗憲님이 東京帝大 倫理學科를 나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철학에 전념중인 唯一人이다. 1932년에는 스피노자 탄생 300주년 기념하기위한 강연회가 YMCA강당에서 열렸는데, 나는 중학 3년생으로 참석하여 들었는데 金博士의 경우만을 기억하고 있으며, 1936년에는 中央佛敎專門學校 시절에는 슈프랑거의 강연을 京城帝大 강당에서 듣고 감명을 받은 바도 있다.

나는 위의 머리말을 조요한님의 〈韓國에 있어서의 西洋哲學 연구의 어제와 오늘〉에서 문헌적으로 살핀다가 필자의 見聞을 가장 한국 최초의 「哲學」誌를 학생때 보고 많은 學이 文章詩作에게 잔이 될는 음식처럼 느껴졌을 것은 번한 이나, 그가 철학을 副專攻이라도했던 이 철학과라는것이 더 싱거운 것이다』라고 哲學徒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추측컨대 당시 日本 학계의 新칸트學派 일변도의 講壇哲學이 이들에 최초로 철학을 전공한 崔光沃님이며, 뒤이어 李光洙님이 五山學校의 敎師職을 그만두고 1915년에 다시 와세다大學 哲學科에 입학, 수학하다 2년후에 중퇴하였는데 1935년 學窓獨語라는 수필에서 『오늘날 大學에 哲學科라는 것이 있다. 싱거운 소리 같지마는 내같이 싱거운 것보다는

國譯「新華嚴經合論」펴낸 金香虛스님

<본교大學神院長·月精寺祖庵>

◇金香虛스님

不條理, 華嚴思想으로 克服

刻苦18年의 結實…"한잠자고난 기분"

國譯으로 最初, 47冊 完刊

휴게실

最高의 眞理이면서도 가장 깊은 「華嚴思想」을 가리키는 「華嚴經」이 새로 탄생한 「新國譯華嚴經合論」이 바로 그것. 본교 大學神院長 이며 月精寺의 祖庵스님인 金香虛스님(63)이 18년간 刻苦로 完譯하신 것이다. 「新華嚴經合論」은 唐의 實叉難陀(印度僧侶)가 漢譯한 「華嚴經」과 同時代 李玄通의 「華嚴論」 鉢華嚴經」을 한글로 解釋하고 漢譯에 비견할 만한 註를 달아 結實한 최초의 47冊 1帙 「華嚴經」의 세계에 첫 빛을 비춘 大圓鏡 吞虛스님이 18년간의 苦心 끝에 불만한 「新華嚴經合論」이야기를 들는다.

「갑자기 한 기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는 동안 四部大衆이 說法했으나 得道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이유. 들는이는 더러 부처님이 아니라 자고난 기분이야.」

「華嚴思想」은 「華嚴經」이다 「最上乘의 經典」「華嚴經」을 「國譯해야겠다는마음을 지신 계기도 있읍니까?」

「敎材로 쓰려고 始作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물을 볼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는 동안 부처님이 得道한 것이 아니라 자고난 기분이야. 한잠 자고난 기분이야.」

「

○…

東方思想論叢 …○

<李鍾益博士學位紀念論文集·寶蓮閣>

新着圖書

이 책은 東方學의 開拓과 遺蹟에 있어서 實은 漢·唐 이래 근 2,000년사상 제1인자라고 부를만한 위대한 東方學者인 凡父金鼎卨선생의 業績을 길이 추모하는 뜻에서 凡父先生의 東方思想講座를 중심으로 하여 그와 인연을 맺었던 東大 總長 李瑄根 博士를 비롯한 朴鍾鴻 博士·高亨坤 博士·李恒寧 博士·李鍾益 博士의 귀중한 論稿를 실었다.

이 책이 刊行을 보게된 것은 李鍾益 교수의 博士學位紀念寄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主要目次를 보면 第1篇 汎東方思想 第2篇 韓國佛敎思想 第3篇 韓國民族思想으로 나누어, 第1篇에는 凡父 金鼎卨先生의 「老子의 根本思想」, 李恒寧博士의 「東方思想에서 본 世界平和의 길」 第2篇에는 朴鍾鴻 博士의 「圓測의 唯識哲學」, 李鍾益 博士의 「新羅佛敎와 元曉思想」 「元曉의 生涯와 思想」外二篇, 高亨坤 博士의 「韓國佛敎의 傳統思想」 그리고 第3篇에는 凡父先生의 「風流精神과 新羅文化」 李瑄根 博士의 「우리民族思想과 日本文化 關係」 李鍾益博士의 「한밝思想考」 등이다.

○……

韓國婚姻考 ……○

<金完燮著高麗大出版部·국판>

혼인법을 비롯한 가족법은 經濟生活에 視한 財産法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生成된 것으로서 민족적 固有性을 지닌다. 그例로 日帝가 韓國을 병합하여 1912년 「朝鮮民事令」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재산관계는 日本民法典에 依用하면서 신분관계는 韓國의 관습에 따르도록 했던점 들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著者는 韓國人만이 지닌 固有한 風俗中 大事중의 대사인 혼인관계를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드러난 婚制와婚俗의 大要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1장 「혼인제도의 起原과 변천」에서 婚制의 발생과 변천상, 婚制에따른 成語등을 다뤘고, 제2장 「혼인법의 立法沿革」에서는 韓國과 中國의 婚姻法典을 비교 연구했다. 제3장 「韓國古代의 婚姻史」, 제4장 「高麗·朝鮮時代의 婚姻史」에서는 역사적인 婚姻法制의 흐름을 알기쉽게해서 놨다.

○……

黃狗의 悲鳴 ……○

<千勝世著·創作과 批評社·국판>

소설가이자 희곡작가인 著者의 세번째 創作集·萬海文學賞受賞作인 「黃狗의 悲鳴」 「暴炎」 중편인 「落月島」 외에 다수의 단편이 실려있다.

저자는 분류벽에 사로 잡힌 일부평자들의 말처럼 단순한 토속문학가는 아니다. 그의 작품세계는 「그날의 草線」 「暴炎」 등에서 볼수있는 것처럼 인간에의 따뜻한 이해와 더불어 부조리한 현실을 아픈곳이면 어디든지 뛰어들어 폭넓은 세계를 보여준다.

<中央圖書館 提供>

여름斷想

梁承培

네가 좋아 하던 그는 갔다。

다시 돌아올 듯 두어 걸음 내디디더니 1년의 「기다림」을 기약하고멀어져 갔다。

보름동안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뭐이나 친숙해진 계절이다。山에서 혹은 바다에서, 또 한간 책상머리에서 느끼던 여름。「自然과의 親和」를 목적으로 했던—

선풍기의 人工的인 바람에서 완전한 멋을 지니 부드러운 海風으로, 처음 가보는 작은 섬의 깃대가 있는 어촌, 돌담 틈바구니에서 기어나오는 빨간 접게들 가진 게…

밀물에 밀려오는 파란 海草, 하얀 조개껍질—전부 채집하고싶은 욕심을 불러 일으킨다。

바닷가에서 줍던 아름다운 조개껍질은 때묻은 마음을 씻어 준다。마치 미래의 꿈을 거기서 연하려는듯 조심스레 찾아 헤매던 나날들。

현실을 훨훨 털어 버리고 솔같이 펼쳐진 백사장에서 밀집모자를 얼굴에 덮고 잠은 꿈을꾸던 날도 있었다。내가統海하고 있는 지금,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나침판은 방향을 잃고, 키를 잡은 손이 후들거리는 지금, 그래도 칠수가 맡는 마래의 청사진을보고 삶의 確信을얻었다。

내가 철계하고 직접 벽돌을 쌓아야겠다는 자신도 함께 맡이다。

水平線에 미끄러지듯 가라앉는 태양이 그렇게도 빨갛고 큰 줄은 몰랐다。

미련없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내일에의 기다림。여정을 돌라 아늑바 였던 일도있긴 했다。또 한 형식에 매이지 않으려면 내가 쓰디쓴 커피를 마셔야하고 담배를 물어야했나보다。

종종 황혼에 눈을 감으면 별이 총총할때 눈이 떠진일이 있다。왜 흐르는 밤이 그리도 아쉬운지 친구하고 몇번 작정을했던가。

여유를 가지고 삶자면 나도 약속시간 10분만 지나면 불안하고, 20분정도 되면 화가나고 30분쯤 되면 가버린다(?)。

한번은 4시간을 작정하고 돌계단에 앉아 있다。참 멋있는밤이니 우리 잠자지 말자고, 별이좋지 않으냐고, 젊은 파도가 어떠냐고, 밤이라 조개껍질은 못 줍지만 저별에서 우리의 꿈을찾자고…

北에서 南으로 길게여울지는 銀河에 흐르는 수천의 눈동자와 그銀河에 별무리를 한움큼 붓는듯 한 부두최정。

멀리 떨어져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내 작은 꿈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모기향에 몇번째나 데면서 만들던 꿈이 미래에 대한 나의 삶이다。

언제부터인지 비교학적인 思考方式이 울렸다。

정원에 피어있는 장미와 그 사이 사이에 남아있는 줄풀들을 볼때 어느것이 더 아름답다고 斷言하지는 못하는것이 지금의 심정이다。

확사하고 풍성한 아름다움, 인간이 키워주는것과 自然的인 생명력으로 피어 나는 하찮은 하얀 꽃。

꽃밭해지고 싶다는 꿈은 無力함과 무관심과 현실을 도피하려는 弱한 者의 변명일까? 평범한가 운데 非凡이 있고 眞理가 있다던가。가끔 생각하면 일이지만 쉬운 것같아도 어려운것 같다。

歲한 가운데 貴이라고나 할까?

타는 듯한 太陽도, 미끈하게 자란 푸른나스모매달아나 숲속의 모닥불, 파랗게 빛나던별들…

모두 한점을 들러 섰다。

그런나 1年뒤를 약속하고 떠났으니 기다리자。그 동안 지으려던 집의 設計圖를 확인하고 뒤를 다지자。

軍에 간 친구가 보낸 편지의 한 句節—「라테요란한 관송이 모래위에 누워 별을 저다 보던 그날밤과 조용히 스며들던 저 별을 향해 손을 뻗치리라。잡을 수 없는 저 별들을 잡기에—」

<法政大·行政科>

隨筆

가을로 넘는 막바지길목인가。—9월에 결맞게 굵은비가 중인 토록 내린다。

이비는 철판에 「루토피아」라고 크게 쓰고, 그 두꺼운 안경을 걸어놓으며 K교수가 장의실을나가던 때부터 내렸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어우를때 우리는문득 힘없는 눈초리로 장의실밖을 내다보는 친구 놈의얼굴 모습이 더욱 정다워 보이고, 교수님의 허름한옷 소매에 묻은 숯고체 가루를 털어 버리고 서둘러 그 장의실을 나왔다。

「—9월에 결맞게 굵은비가 중인 토록 내린다。」

이비는 철판에 「루토피아」라고 크게 쓰고, 그 두꺼운 안경을 걸어놓으며 K교수가 장의실을나가던 때부터 내렸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어우를때 우리는문득 힘없는 눈초리로 장의실밖을 내다보는 친구 놈의얼굴 모습이 더욱 정다워 보이고, 교수님의 허름한옷 소매에 묻은 숯고체 가루를 털어 버리고 서둘러 그 장의실을 나왔다。

「—9월에 결맞게 굵은비가 중인 토록 내린다。」

이비는 철판에 「루토피아」라고 크게 쓰고, 그 두꺼운 안경을 걸어놓으며 K교수가 장의실을나가던 때부터 내렸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어우를때 우리는문득 힘없는 눈초리로 장의실밖을 내다보는 친구 놈의얼굴 모습이 더욱 정다워 보이고, 교수님의 허름한옷 소매에 묻은 숯고체 가루를 털어 버리고 서둘러 그 장의실을 나왔다。

가을로 넘는 막바지길목인가。—9월에 결맞게 굵은비가 중인 토록 내린다。

이비는 철판에 「루토피아」라고 크게 쓰고, 그 두꺼운 안경을 걸어놓으며 K교수가 장의실을나가던 때부터 내렸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어우를때 우리는문득 힘없는 눈초리로 장의실밖을 내다보는 친구 놈의얼굴 모습이 더욱 정다워 보이고, 교수님의 허름한옷 소매에 묻은 숯고체 가루를 털어 버리고 서둘러 그 장의실을 나왔다。

가을로 넘는 막바지길목을 지키던 먼위를 떠밀고 쏟아져 뛰노는 노을이 펼쳐진 곳마다 귀뚜라미 소리에 가을이 큰다。

아이들 기다림에 커지는 한가위 보름달。

마을은 솔내나는 달빛을 모아 송편을 빚고 열매들이 부르는 9月의 노래。

夕陽

金南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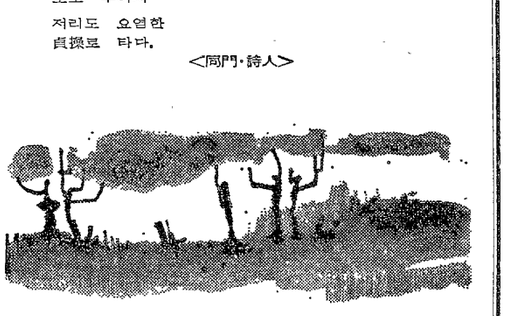
I

남回裝 저고리에
쪽두릴 얹고
첫날 밤 내 童貞을
넘보다 보다
외 영혼
나래 접어
푸른 자락 자락에
눌러 쓴
저 詩.

II

옷고름 풀고
다가와서는
한
반 뼘쯤의 내 視野를
재 보고 난 후
西山 길목에
모로 누어서
저리도 요염한
貞操로 타다.

<同門·詩人>



가을로 가는 9月

◇學事日程

2日	中央學徒護國團 發團式
2~4日	추가 수강신청기간
11~13日	수강 신청정정기간
13日	敎養學部 득서클
16日	후기졸업식
20日	秋夕

「20世紀의 宗敎 分析」

T·S링著 白尙昌譯

英國의 著名한 比較宗敎學者인 리드데학의 「림」교수의 저서 「佛陀, 맑스주의, 그리고 神」이 精神分析學的 白尙昌博士에 의해 20세기의 宗敎分析」이란 이름으로 번역출간 되었다。

제1부는 세속주의와 종교, 제2부는 불교와 종교, 제3부는 맑스주의와 종교, 제4부는 신학과 종교 등 분류하여 현대인의 정신구조속에 있는 종교적 요인을분석검토하고있다。

比較宗敎學이란 각종宗敎의 신앙체계, 세계관, 인생관, 儀式, 戒律등을비교연구하는 학문의토서종교간의 상호관련을 도모하는데의미가있는것이다。

특히 물질지상주의의現代文明에 시달리고 있는 정신적인 불안과 갈등, 초조의 감, 절망감내지는 노이르제적 상황에 처한현대인에게 佛敎는 어떠한 해답을 줄수 있는가를에리하게 파헤치고 있으며 또 기독교는 佛敎에서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佛敎는 기독교에서 어떠한 점을 받아들여야 할것인가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또한 맑스주의도 하나의 종교로 보고있는 몽상주의를 이웃에 접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인가를 분석검토하고 있으며 卷末에는 佛敎와 기독교를 그리고 맑스주의의 理論을 關係專門家들이 종교의 상호발전적인 측면에서 논의한것을 수록함으로써 종교인들을, 人生을 생각하는 哲學徒나 現代를 걱정하는 知性人들에게는 감히 一讀을권하는 바이다。

<白林出版社·刊 定價 1,200원>

金知見

佛敎와 基督敎 比較 分析

「맑스」주의적 宗敎觀批判

書評

「湖南歌壇研究」는 丁益燮博士가 全南大學校에서 20년간이나 연구하면서 그곳 地方文壇을 중심으로 훈여저 내려온 前代文學의 유산을 발굴, 정리한 업적의 하나이다。

그는 이미 湖南地方의 歌辭研究에 전념하여 여러편의 논문을 학계에 발표하였거니와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여 그 알맹이만을 가려 간추린 專著가 이 「湖南歌壇研究」라 할 것이다。

여기서 著者는 湖南詩歌의 活動相과 그 배경을 概觀하고 本論에서 宋純을 중심으로한 俛仰亭歌壇과 鄭澈을 중심으로 한 星山歌壇을 깊고도 폭넓게 다루어 그 전모를 밝혔다。

丁교수는 論著展開를 위해서 모든 자료와 문헌을 섭렵함은 물론, 현장을 여러차례 답사하여 실상이 피진으로서 薦의하나라도 빠뜨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

「湖南歌壇의 考究는 바로 歌辭文學의 淵源을 밝히는 작업이며, 아울러거기에서 歌統을 다잡아야 할은 상식이자 通則이다。

연구나 俛仰亭歌壇과 星山歌壇은 우리歌辭文學의 본질이므로 이 湖南歌壇研究는 진작 著眼부터가 湖南詩歌의 계통을 세우려면 俛仰亭과 松江을도외시할수 없으며, 朝鮮朝文學의 脈絡을 짚는데있어서도 湖南文人에게 그 중심 거냥을 맞추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湖南歌壇의 考究는 바로 歌辭文學의 淵源을 밝히는 작업이며, 아울러거기에서 歌統을 다잡아야 할은 상식이자 通則이다。

연구나 俛仰亭歌壇과 星山歌壇은 우리歌辭文學의 본질이므로 이 湖南歌壇研究는 진작 著眼부터가 湖南詩歌의 계통을 세우려면 俛仰亭과 松江을도외시할수 없으며, 朝鮮朝文學의 脈絡을 짚는데있어서도 湖南文人에게 그 중심 거냥을 맞추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前代 歌壇研究의 先鞭

松江의 再評價등 卓越

丁益燮博士著

「湖南歌壇研究」

○○○○○○

본문은 바가았다。」고 李丙燾박사가 序文에서 말한것처럼 湖南歌壇의 연구가 없이는 朝鮮前期歌辭의 展開樣相을 서술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壬辰倭亂 이전의 靜寂인과 湖南地方의 歌辭研究에 전념하여 여러편의 논문을 학계에발표하였거니와 그것들을다시 정리하여 그 알맹이만을 가려 간추린 專著가 이 「湖南歌壇研究」라 할 것이다。

여기서 著者는 湖南詩歌의 活動相과 그 배경을 概觀하고 本論에서 宋純을 중심으로한 俛仰亭歌壇과 鄭澈을 중심으로 한 星山歌壇을 깊고도 폭넓게 다루어 그 전모를 밝혔다。

丁교수는 論著展開를위해서 모든 자료와 문헌을 섭렵함은 물론, 현장을 여러차례 답사하여 실상이 피진으로서 薦의하나라도 빠뜨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

「湖南歌壇의 考究는 바로 歌辭文學의 淵源을 밝히는 작업이며, 아울러거기에서 歌統을 다잡아야 할은 상식이자 通則이다。

연구나 俛仰亭歌壇과 星山歌壇은 우리歌辭文學의 본질이므로 이 湖南歌壇研究는 진작 著眼부터가 湖南詩歌의 계통을 세우려면 俛仰亭과 松江을도외시할수 없으며, 朝鮮朝文學의 脈絡을 짚는데있어서도 湖南文人에게 그 중심 거냥을 맞추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丁學士는 「湖南歌壇의 淵源을 구명하기 위해 百濟時代의 歌謠부터 그 淵源을 소급하여 考察하고, 내려오면서 高麗의 俗謠·別曲體歌, 朝鮮朝의 時調·歌辭·판소리 등 각종 詩歌文學이 生成·發展해온 사실을 通時的으로 체계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松江歌辭에 대하여 讚揚一邊倒로 기울고 있던 종래 諸家의 偏見을 도려내어 實相대로 再評價한것은 卓見이다。

곧 俛仰亭歌에 대한 星山別曲, 關西別曲과 關東別曲, 蔡儁歌와 思美人曲, 續思美人曲 등에 나타난 상호 영향의 密度를 엄격히 저울질하여 그 先後關係를 밝혀놓음으로써 學界에 定說을 세워준점이다。

아직껏 前代 地方文壇의 연구는 地域的인 特殊性때문에 그 總體的인 결실을 얻지 못한 오늘날 湖南地方의 詩歌研究에 한해서만은 丁敎授의 꾸준한 熱意로 이럼 所重한 업적을 보게됨니, 同學後進들에게 燦然한 지침으로 알고 감히 精讀을 권한다。

<進明文化社刊 定價1,500원>

李相寶

原稿募集

本東 大新聞은 在學生 여러분의 興望에 부응키위해 大學人의 學究熟과 知性이담긴 學術論文을 비롯 詩, 小說등 文藝作品과 各種報告記·踏査記등을수시로받고있읍니다. 특히 短篇小說은每月1回 全載하기로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投稿바랍니다. 投稿는 本社編輯部및 投稿函(學生會館入口·도서관열람실입구에비치)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投稿要領

一, 詩 3편이내
一, 小說 60枚內外 (200字紙)
꽁트 15枚內外(〃)
一, 論文 20枚以內(〃)
一, 隨筆 10枚以內(〃)
一, 연구報告·踏査記·20枚
其他 15枚以內(〃)

※原稿는 每週 金曜日 마감합니다

東大新聞社

메아리

▲최근 우리 나라에는 「戰爭」이라는 용語가 자주 쓰여진다。그렇수밖에 없는것이 越南戰爭의 餘波인 것은 그때문이다。

그 여파로 韓半島에도 다시 「戰雲」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人間은 다분히 兩面性을 띠고 있다。善의 可能性을 찾고 있는 반면惡으로의 可能性을 찾고 있다。

戰爭을 없애려는 者의 뒤에는 戰爭을 일으키려고 책동하는 者가 있다。

사실 戰爭에서는 勝敗 國이전 敗戰國이전 희생이 있는 것처럼 戰爭은 치명적인 運命을 지닌다。

戰爭에선 勝者도 희생을 피치만 이 戰爭을 없애려면 이것이 必要한것이다。

▲藤蔭의 리시아 혁명은 「이사지바고」(파스테르나크)와 「1914년8월」(솔제니친)을 낳았다。미규모의 전쟁이나 혁명을 치룬 국가는 반드시 훌륭한 문학작품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바람과 함께사라지다」(마가렛트 미첼)를 저술하게했다。世界2次大戰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않았다」(하인리히 뵌)라는스케일이 큰作品과 「게오르규의 「25時」를 꼽게한다。전쟁과 혁명이 있은 뒤에는 社會의 모든 면이 놀랍도록 변한다。文學 藝術 분야에서는 더욱은 영향을받는다。우리에겐 6·25란 가슴아픈 전쟁체험을 가지고 있은면서도왜훌륭한 문학작품이 없을까。반성해볼만한문제이다。〈奉〉

學文과 爭戰

가을과 詩人

林鍾彬

가을이 깊고, 밤이 깊어질수록 詩人은 모든공포를 떨쳐버리는 유토피아를 찾게된다。詩人들은 낙엽을 보며 새싹을 생각하고 천다간 비비새의 등우리를 보며, 돌아올봄의 파란 그 비비새알을 생각한다。모든 공포—심연, 無知, 不幸, 심지어죽음마저도 詩人은 초월한다。노교수 돈보기 안속의 눈망울이 장의실의 생관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인생의 아주 미미한 순간을 인생이라고단정짓는데서 생긴 말이오。

가을이 깊어지면 그림자가 길어지듯 詩人의눈은 깊게 빛난다。플라톤이 보았더라면 그같은망언은 하지 않을 빛나는 눈을。詩人의 모든것속에서 우리는 그 빛나는 눈을 존경해야한다。그리고 그 빛나는 눈을 배워 플라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한다。

플라톤 솔솔 깨나사실은 말아…당신네 철학자들은…。우리는 哲人이 있는 자네의 유토피아를 만들려 이렇게 빛나는눈을 하고 있지。

詩人은 내어 쫓겨때을 지 않았듯이 유토피아에 들어가도록 허용될때 기뻐하지 않는다。그들은빛나는 눈과 떨림의 시귀속에 빛써 유토피아를지 서을 에저또劇場에서 앙코르공연을 갖는다。

文化短信

사진기술강좌 1일부터30일까지

동양사진연구회는 사진에 취미가 있는 아마추어인 이들에게 제3회사진기술 무료강좌를 실시한다。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계속되는 이번 강좌에는 흑백·칼라·스튜디오·의 사진기술을 동양미술사진학원의 朴亨元씩등이 강의한다。문의처는 ㊋1604。

劇團「에저또」「뻔」앙코르공연

劇團「에저또」는 1일부터 르트 반 이태리 作 「뻔」을 9월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에저또倉庫劇場에서 앙코르공연을 갖는다。

시간은 평일 저녁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4시와 7시。

「뻔」은 셰익스피어의 가능성을 시사한 작품。

「컴퓨터」무료강좌

光云電子計算所

光云電子計算所는 9월1일부터 「컴퓨터」 無料강좌를 연다。

課目은 「포트란밍」 개론과 「코볼」 및 「포트란」。

강의시간은 오전10시, 오후2시, 저녁6시반。

문의처는 ㊋1494。

맥주보다 3배 강한 자연의 술

파라다이스는 맥주(4°)보다
3배 강한 12°의
애플와인 입니다.

사과와 설탕, 효모만으로
자연 발효 시킨
순수한 파라다이스는
대자연의
영원한 젊음을 간직합니다

애플와인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주) 72-5839, 74-4749, 75-9289
대구공장 4-3785 부산 42-0396

파라다이스 코너 파란집 ● 삐에르

맑게, 밝게, 아름답게

AMORE TAMINA
아모레 타미나 화장품

가을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면
여인은 한결 피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싱싱한 젊음과 영양을 주는
아모레 타미나 콜드크림.
햇볕에 타고 더위에 지친 피부를
아침 저녁 맛사지로 가꾸세요.
새로운 감촉으로 밝고 밝게
아름답게 가꿔 주는
아모레 타미나 콜드크림.

아모레타미나 모이스트크린싱크림…1,800원 · 아모레타미나 콜드크림…1,800원 · 아모레타미나 슈퍼란크림…2,000원 · 아모레타미나 나리올팩…1,200원